

한반도 평화시대 열고 '나라다운 나라' 기틀 세워

문재인 정부 1년

'촛불 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첫 1년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파격과 소용으로 대변되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불통과 권위로 상징됐던 이전 정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70~80%대를 넘나드는 국민 지지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물로는 '한반도의 봄'이 꼽히고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올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이어 9월에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대에 올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 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광 포위사격',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받아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첫 한미 미사일 원점 타격 훈련과 국제적 경제 제재 등을 통한 강한 응징과 압박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대화 기조를 버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 관계의 국면 전환 계기로 활용했으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화답하면서 평화 여정의 불꽃을 뿜었다. 마침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북미정상회담 이끌어내

대야 협치 실증 개헌 좌초

일자리 만들기 아쉬움

안보실장의 상호 특사 방문으로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의 전환 의지를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도출, '한반도의 봄'에 대한 희망을 가져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핵화의 핵심 당사자인 북미 정상 간의 5월 말 또는 6월 담판을 이끌어내면서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캐치 프레이즈로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고 불의와 관행으로 점철된 과거와 결별을 선언하며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국정원·검찰·군 등 권력 기관을 개혁의 수순대 위에 올리고, 교과서 국정화 폐기와 공론화를 통한 원자력 발전 정책 전환 등 국민 눈높이 정책을 구사했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부터 최근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인사 검증 부실은 정책 추진 동력 저하를 부르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좌초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됐지만, 국정 책임자로서 야당을 설득해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협치 부재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도 문제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제1(1) 노믹스'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표는 좋다. 지난해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 국민 소득 3만불 시대 등이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성과다.

하지만 국민들이 변화나 희망을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특히, '일자리를 정부'라고 표방한 것이 무색하게 고용시장의 주요 지표는 악화일로 돌아갔다. 지난해 3월 현재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4.5%로 치솟았다. 청년(15~29세)실업률 역시 11.6%로 2016년 2월(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결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근로시간 감축과 최저임금 상승 등 당장 눈에 띄는 정책만 내놓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보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사전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광주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 405건 전남, 213건 중 사회·복지 분야 32% 가장 많아

선관위 발표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최근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 경선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이들 정치인들의 정치 행보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정치인이기에 사실상 '지방자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일부 후보들이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와 연대하는 줄서기 구태를 되풀이 하면서 '정책·공약 선거'에 대한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발표한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이 이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인들에게는 마을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도심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가 미리 주차 시간을 정해 놓고 일정한 시간 동안 주차를 하는 제도인 '주차미터'와 낮은 영구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의미 있는 공약도 많았다.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지역은 213건의 공약 중 '사회·복지'(32%) 분야 제안이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30%), '교육·환경'(18%) 순으로 제안을 많이 했다.

고령화 지역이 많은 탓인지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늘려달라' '지속가능한 지역 소외계층 지원 방안 마련' '완도 실정에 맞는 지역난방 제안' 등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약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또 무언에 선거문화를 제할할 수 있는 '선거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시군별 지방하천 지킴이 일자리 신설' 등 전남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생활 공약도 많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래건축산업 선도도시 조성·광주역 재개발 시급 군공항 이전·도시철도 2호선 조속 추진도 요구

광주 경제단체들이 광주시장 후보에 전하는 11개 정책 제안

광주 경제단체들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11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8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 등과 공동으로 '민선 7기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전하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지역 기업인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7기 광주시장에게 바라는 기업인의견조사'를 토대로 11개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11개 정책으로는 ▲미래건축산업 선도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 전문 교육기관 설립·유지 ▲친환경 완성차 기업 유치 ▲지역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광주역 재개발과 문화관광 랜드마크 건립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확충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발전 청사진 수립 ▲도시철도 2호선 조속 추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 인프라 확충 ▲소초 산업·농공단지 통합 재생사업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이다.

미래건축산업 선도도시의 경우 건설산업의 국가 경제와 고용에 대한 기여에도,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실증형 R&D 기관이 부재한 점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에너지를 위한 연구기관, 미래건축산업이 융복합된 스마트홈, 도시재생 등이 미래건축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 정책 제안이다.

미래건축·융복합·사업화 연구기관, 미래건축디자인 비엔날레 개최, 스마트건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단체측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창업스쿨 설립

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들은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전기차,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환경에 대비, 지역생산업(7940억), 부가가치(2360억), 고용창출(7145명) 등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친환경차 완성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국 하위 수준의 광주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특급호텔, 대형 전시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확충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조속한 추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상회가 지난 3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복수응답) 결과, 응답한 기업인의 49.6%는 '민선 7기 중점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꼽았고 39.4%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배후도시 건설을 들었다. 이들은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47.0%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 활성화를 들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안공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쭉~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마츠모토(나가노), 방콕, 다낭, 제주도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2018년 5월 13일(일)~ 정기편 운항 주 3회 출발 / 매주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큐슈 품격 특가** 단, 4회(5/8(화), 5/15(화), 5/22(화), 5/27(일))

2박3일 기타큐슈(일 출발) 3박4일 기타큐슈(특급 2박 / 고급 온천료만 1박)

◆ 한정특가 499,000원~

◆ 야마구치품격 699,000원~

399,000원~

무안 ↔ 마츠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관광]

2018년 5월 18일(금)~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마츠모토(13:10) / 마츠모토(13:30) → 무안(16:20)

[품격] 나가노,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3일(고급료만 숙박) 일요일 출발 938,000원 금요일 출발 998,000원

[품격] 나가노, 나고야,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4일(고급료만 숙박) 화요일 출발 1,198,000원

★ 알펜루트 전코스 관광(숙박 기간: 4/15~6/22)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전 코스관광)

★★★ 일본 최고의 절경 북 알프스 관광 ★★★

★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에서 다테야마 연봉 무로토까지의 대자연의 케이빙,고원버스, 로프웨이 등으로 이동하는 왕복 산악 루트를 달렸으며 이동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며 5시간 산책 하는 코스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8일(금) 이후 쭉~우~욱~

주 2회 출발 / 매주 화(3박4일), 금요일(3박5일)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트)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념품, 배개, 비디오 상영

5월 가정의 달 3박4일 한정 특가 499,000원~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호이안·하트스프링 3박4일(화) 66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2박3일(주중) 299,000원~ 2박3일(주말) 379,000원~

지중해 크루즈 10일 (모스크바,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2018년 4월 30일(월)~ 매주 월, 목요일(3박4일) / 수, 금요일(2박3일)

◆ 오사카, 나라, 교토 2박3일 699,000원~ 출발일: 6/15(금), 6/20(수)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고베 3박4일 899,000원~ 출발일: 6/11(월), 6/28(목)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방콕·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2018년 5월 2일(수)~ 매주 수, 목요일(3박5일) / 토, 일요일(4박6일)

◆ 준특급호텔 649,000원~ ◆ 특급호텔 699,000원~ (6/20(수) 출발 확정)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2003-1호

※ 관광조건: 여행(비행) 기간: 여행(비행) 기간: 1~10년 국내여행 5~10만원, 관광진흥법(기타) 관광 및 부수 비용, 유류항공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기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원서)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등록,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책관광, 각종 비자(비행 별도) ◆ 취소 환불정책: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